개천에서 용 난단다

곽 병 찬 /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라고 한다. 좋은 씨앗은 좋은 소출을 거두게 하고, 거기서 취한 씨앗 역시 좋은 소출을 대물림한다고 한다. 그래서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고 했다. 식물만 그런 게 아니다. 소, 돼지, 말 따위의 가축도 몸집 좋고 힘 좋은 수컷을 골라 종돈 종마로 쓴다. 물론 밭도 좋아야 한다. 좋은 씨는 좋은 밭에 심고, 좋은 수컷은 실한 암컷과 짝을 지어준다.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짐짓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고 말하며 평등주의를 자랑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자식 시집 장가 보낼 때 가문 따지고, 학벌 따지고, 건강진단서까지 챙긴다. 옛날엔 매파가 거간을 섰지만 요즘은 결혼중개회사라는 것이 생겨,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은 물론 출신학교와 성적증명서까지 대조해가며 짝짓기를 해준다. 무척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젠 아예 머리 좋고 건강한 남자에게서 구입한 정자와 훌륭한 젊고 예쁘고 학벌 좋은 여자의 난자를 받아두었다가 실수요자에게 파는 은행도 등장했다. 이런 과학적, 통속적 우생학에 따라 히틀러는 순수한 게르만 혈통을 육성하고 나머지는 도태시키려 했다.

그러면 과연 사람도 왕대 밭에서 왕대 나듯 하는 걸까. 다행스럽게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를 반증하는 두가지 실례.

사례 하나. 최근 박지만씨가 히로뽕을 투약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써 6번째다. 지만씨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가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고 그의 변호인은 전했다.

사례 둘. 역시 지난달 있었던 일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부를 죽인 사람은 대학생 아들로 밝혀졌다. 이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교수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공부 못하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올 초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죽은 이 교수의 부인은 지난해 12월 이씨의 동생 2명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미국에 가 있었다고 한다. 잘난 부모에 못난 자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주변에 적지 않다. 아니 잘난 부모 밑에선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기 힘들다고 단언하는 이들도 많다. 부모의 기대와 경력, 학력에 짓눌려 자라다보니,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엇나가기 쉽다는 것이다.

잘난 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떼거리로 강남으로 몰려간다. 유명학원이다 과외다 하여 돈을 쏟아 붓는다. 물론 그 돈은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개 아이들이 용납하기 힘든 방식으로 벌어들인다. 하지만 검은 돈, 흰 돈 가리지 않고 쏟아부으면 자식을 남들 보다 좀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은 왕대 밭에 왕대 난다는 말 맞은 편에 '개천에서 용 나고 용천에서 미꾸라지 난다'는 경구를 마주 놓아두었는지도 모른다. 용천에서 개 나기는 개천에서 용 나기보다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